

II급 부정교합의 비발치 증례

장 준 규 / 서울바른이치과

Class II 구치부 관계를 가진 환자에서 발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다. 만약 비발치로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계획한 대로 후방 이동이 가능할까?’, ‘안모가 악화되지는 않을까?’와 같은 막연한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이나 진단 공식이 있다면 좋겠지만, 동료 치과의사나 치과교정과 전문의들에게 의견을 구해봐도 서로 다른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Class II 비발치 교정치료에서 총생을 해소하고 입술 돌출을 방지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상악 구치부를 후방 이동시켜 Class I 구치 및 견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치부 관계의 개선을 위해 구외 장치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협조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펜듈럼 장치 등의 구내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방부 고정원 상실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미니스크류가 교정 치료에 도입된 이후, 보다 예측 가능하게 구치부 후방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과거에는 발치와 비발치의 경계에 있던 많은 증례들에서 비발치 치료가 가능해졌다.

이번 발표에서는 다양한 문헌과 임상 증례를 통해 다음의 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상악 구치부 후방 이동은 얼마나 가능할까?
2. 후방 이동을 제한하는 해부학적 요소는 무엇인가?
3. 미니스크류를 이용한 상악 구치부 후방 이동을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석사 및 박사
-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인턴 및 치과교정과 레지던트
- * 현, 서울바른이치과의원 대표원장